

“우승팀 주장 타이틀 정말 기분 좋아”

■ 말수 적지만 잘 챙겨주는 KIA 주장 김주찬 이야기



“개인적으로 정말 기분좋은 타이틀이다.”

김주찬(KIA)은 ‘우승팀 주장’이라는 타이틀에 대해 아주 만족해 했다. 주장 중책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았으나 선수단이 하나로 뭉쳐 통합 우승이라는 최고의 성과를 거뒀으니 더 바랄 게 없다.

13일 일본 오키나와 아카마 불파크에서 만난 김주찬은 “내가 주장을 맡기 전에 (이)범호가 주장으로서 팀을 잘 이끈 덕이다. 나는 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선수들이 정말 잘 해준 덕에 ‘우승팀 주장’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됐다”고 공을 돌렸다.

두 번째 FA 자격을 얻게 된 김주찬은 예상대로 KIA 잔류를 선택했다. 그는 “최근 들어 베테랑이 홀대받은 분위기였는데 구단에서 배려를 많이 해준 덕분에 이렇게 계약을 잘 마칠 수 있었다. 잔류 의지는 확고했다. 타 구단 이적은 단 한 순간도 생각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주찬과의 일문일답.

▶ ‘우승팀 주장’이라는 근사한 타이틀을 얻게 됐다.

- 개인적으로 정말 기분좋은 타이틀이다. 내가 주장을 맡기 전에 (이)범호가 주장으로서 팀을 잘 이끈 덕이다. 나는 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선수들이 정말 잘 해준 덕에 ‘우승팀 주장’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됐다.

▶ 주장 중책에 대한 부담감은 없었는가.

“현팀 분위기, 한번 더 우승 기쁨 맛보고봐” 두번째 FA 잔류 “베테랑 배려 많이 해줘”

- 지난해 주장을 처음 맡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는데 동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잘 해준 덕분에 생각보다 편하게 주장 역할을 했다. 아주 감사하게 생각한다.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 동료들은 ‘말수는 적지만 잘 챙겨주는 스타일’이라고 입을 모

은다.
- 그렇게 생각해준다면 고마울 따름이다. 예전에는 내가 해야 할 부분만 하면 됐지만 주장 선임 이후 내가 한 발 더 먼저 나아가고자 한다.

▶ 외국인 선수 3명과 FA 선수 2명 모두 잔류했다. 전력 누수가 없으니 올 시즌에도 대권 도전을

“웨이트 트레이닝 뿐만 아니라 순발력 강화 훈련에도 평소보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 흔히 순 발력이 떨어지면 야구를 그만 뒤 야 한다고 하는데 순발력 강화 훈 련을 통해 순발력이 떨어지는 시 점을 최대한 늦추려고 한다.”

기대해도 좋을 것 같다.
- 야구라는 건 뿌증을 열어봐야 알 수 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하지만 지난해 통합 우승을 달성했다고 자만하지 않는다. 올 해도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현재 팀 분위기를 봤을 때 자만하지 않고 더 열심히 해서 다시 한 번 우승의 기쁨을 맛보고

싶다는 마음이 아주 강하다

▶ FA 계약 완료까지 다소 시일이 걸렸다.

- 최근 들어 베테랑이 홀대받은 분위기였는데 구단에서 배려를 많이 해준 덕분에 이렇게 계약을 잘 마칠 수 있었다. 잔류 의지는 확고했다. 타 구단 이적은 단 한 순간도 생각한 적이 없다.

▶ FA 계약 발표 이후 이범호가 조계현 단장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고 들었다.

- 이범호와 늘 이야기하는 게 있다. 앞으로 선수로 뛸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곳에서 아름답게 마무리하고자 팀 분위기가 아주 좋고 앞으로 이런 팀은 평생 만나지 못할테니 정말 후회없이 해보려고 다짐했다.

▶ 이범호와 아주 친하다. 브로맨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 말하지 않아도 서로가 원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고 할까. 성격은 많이 다르지만 성격이 다른 것과 친해지는 건 별개라고 본다. 둘이 만나면 외향적인 범호가 이야기를 많이 하고 나는 많이 듣는 편이다. 그러면 서로 잘 맞는다는 의미 아닌가.

▶ 어느덧 30대 후반에 이르렀다. 체력 관리에도 더욱 신경을 써야 할 시점이다.

- 웨이트 트레이닝 뿐만 아니라 순발력 강화 훈련에도 평소보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 흔히 순발력이 떨어지면 야구를 그만 뒤야 한다고 하는데 순발력 강화 훈련을 통해 순발력이 떨어지는 시점을 최대한 늦추려고 한다.

▶ 야구 이외의 질문이다. 결혼해야 할 나이인데 좋은 소식은 없는가.

- 하긴 해야 하는데 참 그렇다. 이전 정말 하고 싶다. 2년 전부터 하고 싶었는데 기회가 닿지 않았다.



“오승환, 메디컬테스트 결과 팔에 이상”

美 언론 “텍사스 계약 포기”

오승환(36)의 텍사스 레인저스행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메디컬 테스트에서 팔의 이상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MLB닷컴 등은 18일 “텍사스와 오승환의 계약이 무산됐다”고 확인했다. 협상이 결렬됐고 텍사스는 오승환과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텍사스 MLB닷컴은 MRI 검진에서 드러난 팔의 문제점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7일 현지에서는 오승환이 텍사스와 1+1년, 최대 925만달러(약 100억6400만원) 계약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메디컬테스트만 거치면 오승환은 텍사스 유니폼을 입을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최근 시작된 텍사스 레인저스의 투수조 훈련에서 오승환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텍사스 말고도 여러 팀이 오승환에게 영입 제안을 했다. 그러나 팔 상태가 정상이 아니라면 나머지 구단과 계약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뉴시스



“주장, 나이 순이 아니잖아요” 프로축구 ‘캡틴완장’ 新풍속도

KEB하나은행 K리그 1(클래식) 2018 시즌에 나설 12개 구단의 주장이 모두 결정됐다. 3월 1일 개막을 앞둔 K리그 각 구단은 주장을 통해 올 시즌 선수단이 하나로 뭉치고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두길 원하고 있다.

나이 많은 선배선수가 주장 완장을 차던 것은 옛날얘기다. 경험을 앞세운 베테랑이 리더십을 발휘하는 팀이 있는가 하면, 선수단의 중심 소통창구가 돼 조화를 꾀하는 팀도 있다. 선배 선수가 있음에도 젊은 리더십을 앞세워 주장을 맡는 선수도 더 이상 낯설지 않다.

포항 스틸러스와 강원FC는 올 시즌 경험이 풍부한 김광석과 정조국에게 주장을 맡겼다.

김광석은 2002년부터 14시즌 동안(군복무기간 제외) 포항에서만 활약한 베테랑이다. 정조국은 2003년 K리그에 데뷔해 다양한 팀을 거치며 경험을 쌓았다.

K리그 2(챌린지)에서 올 시즌 K리그로 승격한 경남FC도 배기종을 내세웠다. 2006년 ‘최신기종’이라는 별명과 함께 K리그에 혜성같이 등장한 배기종이 어서 팀 승격을 이끈 베테랑 선수가 됐다.

이처럼 풍부한 경험이 강점인 이들은 경기장 안팎에서 어린 선수들을 이끌어 주고 정신적인 지주가 되길 기대하는 것은 공통적인 주장 유형에 속한다.

최근 K리그 주장 선임은 ‘소통’이 대세다. 단순히 나이가 가장 많은 선수가 아닌, 중간급 선수에게

주장을 맡겨 어린 선수와 교감 선수의 중간다리 구실을 하도록 한다. 디펜딩 챔피언 전북 현대의 신형민, 제주 유나이티드의 권순형, 울산 현대의 강민수는 1988년생 동갑으로 모두 팀의 핵심 지원이자 소통의 중심창구가 될 팀 내 허리급 주장들이다.

활발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동으로 팬들과 소통에 앞장서는 수완 삼성의 김은선도 소통 창구인 대표적 사례다. 이제 막 30대로 접어든 인천 유나이티드의 최충환과 FC서울의 신광훈도 선수단의 조화를 통해 팀의 젊은 분위기를 이끌어 갈 주장으로 낙점됐다.

20대의 나이에 완장을 켜는 패기 만만찮은 주장도 있다. 상주 상무의 여름, 대구FC의 한희훈, 전남 드래곤즈의 김영욱이다. K리그의 다른 팀에 비해 선수단 평균연령이 젊은 팀에게 젊은 선수에게 주장 완장을 맡긴 것이 특징이다.

한희훈과 김영욱은 나이는 어린지만 소속팀에서 많은 경기를 소화하며 선수단 운영의 구심점 노릇을 하는 선수들이다.

지난 시즌 승강플레이오프에서 골을 터트리며 상주의 K리그 잔류를 이끈 여름은 올 시즌에도 상주 전력의 핵심이다. 상주 김태환 감독으로부터 “실력은 물론이고 인성까지 선수단 내에 본보기가 된다”는 평가를 받은 여름은 올 시즌 상주의 캡틴으로 나선다.

뉴시스

‘라이벌’ 이상화·고다이아, 두 톱스타의 국경을 초월한 우정

이상화 “고다이아와 경쟁할 때 나쁜 기분 든 적 無”

이상화(29·스포츠토트)와 고다이아(32·일본)의 라이벌전으로 주목받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500m는 한편의 드라마와도 같았다. 본의 아니게 라이벌이 돼 치열하게 싸워야 한 두 선수의 포용은 승패를 떠나 존경과 우정이라는 올림픽 정신을 다시 한번 일깨웠다.

메달이 확정된 이상화는 태극기를 든 채 평평 울었다. 고국에서 열린 올림픽에서 3연패를 일궈야 한다는 부담감이 어깨를 한없이 짓눌렀다. 꿈에 그리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된 고다이아는 기쁨을 잠시 접어둔 채 이상화에게 다가가 포옹으로 위로했다.

일본 데일리스포츠는 19일 “아름다운 광경이었다”면서 당시 두 선수가 나누는 대화를 소개했다. 고다이아가 먼저 “압박을 이겨내고 잘 해냈다. 나는 여전히 당신을 존경하고 있다”고 했다. 이상화는 “1000m와 1500m도 뛰었는데 500m도 해냈다. 정말 대단하다”고 답했다.

하나 뿐인 금메달을 두고 제대로 붙은 모양새가 됐지만 실제 두 선수는 국경을 초월한 우정을 나누는 사이다. 고다이아는 이상화가 “항상

친절하다”면서 에피소드를 전했다. “3년 전 서울에서 월드컵 우승을 한 뒤 골장 네덜란드로 돌아가셨다. 그때 이상화가 공장으로 가는 택시를 불러줬고 요즘까지 내렸다. 결과가 역울할 법도 한 데 상대를 배려하는 모습이 너무 좋았다.”

이상화는 기억하고 있는 일화다. “고다이아가 한국 집에 놀러온 적이 있다. 사이가 굉장히 좋았기에 초대했다. 고다이아와 경쟁할 때 나쁜 기분이 든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내가 일본에 가면 항상 돌봐준다. 선물도 주고, 일본 음식도 보내준다. 특별한 친구다.”

남들이 은퇴를 떠올릴 30대 문턱에서 네덜란드 유화이라는 승부수를 띄운 고다이아는 이번 대회를 통해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단거리 최강자로 우뚝 섰다. 자신보다 세 살 많은 고다이아의 선전이 이상화의 행보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기대를 모은다.

한편 이상화는 인스타그램에 “나는 너무나 수고했고 길고 긴 여정도 잘 참아냈다! 2등도 만족하고 아직도 상위권에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너무 좋았고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다. 수고하셨습니다!”라고 적었다.

